

7-5-2009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97:1-12

제문: 출애굽기 20:18-21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세리가 멀리 떨어져 서서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눅 18:13)라고 기도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시내산 마루 아래에조차 서 있을 수 없이 초라해져 있었기에 계명들이 주어졌을 때 이동하여 멀리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들처럼 이집트같은 세상에서 우상들을 섬기다가 나왔는데 시내산에서보다 더 큰 음성으로 **“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는 호령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간음하고 도둑질하였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는 호령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될 것인가? 한 죄인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을 듣는 것과 푸른 하늘로부터 불과 연기와 번개 그리고 천둥소리와 함께 직접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비교조차 안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증거했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벧후 1:17-18)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마태가 증거했다 (마 17:6)

강단에서 사랑만 외치는 설교자들이나 상황윤리를 앞세워 죄를 덮어버리는 심리학자들은 앞으로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계 20:13-15).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말한 세리처럼 지은 죄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주님께서 계실 때처럼 바리새인들같은 많은 위선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눅 18:11-12).

주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셨다 (눅 18:14)

백성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모세에게 애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19 절)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가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듣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리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0 절)고 설명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나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살전 2:13)고 증거했다.

자신을 자기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상대적인 의를 주장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토네이도) 속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쏟아놓으셨다 (욥 38:1-41:34) 마침내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욥 42:5-6)

사도 바울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에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까지도 그가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그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행 9:1-6). 그렇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주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년 간에 걸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은혜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벧후 3:9).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이 말씀들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심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판결과 골수를 찢어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러면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 4:12-13)

사도들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8-19)고 증거했다.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온전한 사랑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빌 2:12,14) 고 권면했다.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불신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님께서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처럼 피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지 못했기에 (히 12:4)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골 3:4)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

7-5-2009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97:1-12

Main scripture: Exodus 20:18-21

Subject: **Have you heard the voice of God?**

When people of Israel heard the voice of the LORD with trembling, they were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even not lifting up so much as his eyes unto heaven, but smiting upon his breast with conviction, and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Luke 18:13) They couldn't stand even at the base of the mountain, and they removed, and stood afar off when they were given the commandments. If we committed idolatry in the word as Egypt, and committed adultery and stealing; and heard the voice of the Lord in much louder voice as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¹⁴**“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¹⁵**“Thou shalt not steal.”**, how shall we feel with the voice of roaring? Preaching of a sinner at pulpit can never be compared to the voice of the God from the blue sky with fire, smoke, lightening, and thunders.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e voice of God with extreme glory from heaven: **“¹⁷For he received from God the Father honour and glory, when there came such a voice to him from the excellent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¹⁸And this voice which came from heaven we heard, when we were with him in the holy mount. “(2Pet. 1:17-18)** Peter heard it with other disciples; they fell on their face, and were sore afraid (Matt. 17:6).

The preachers preaching only the love of God as well as psychologists covering sins with situation ethics shall be judged to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3-15).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voice of the solemn God, and repent, and ask for the mercy with trembling in conviction of sins as the publican. But there are many hypocrites as Pharisees as when the Lord Jesus was in the earth; and they pray to the Lord despising others thinking themselves righteous; and pray as the Lord said, **“¹¹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God, I thank thee, that I am not as other men are,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as this publican. ¹²I fast twice in the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possess. “(Luke 18:11-12)**

People of Israel cried out unto Moses when they were almost unto death, **“ Speak thou with us, and we will hear: but let not God speak with us, lest we die.”**(v19) In other word, finally they came to know that all the words of Moses were from the LORD that they never listened to obey. Moses explained the reason why the LORD spoke directly in solemn fear: **“Fear not: for God is come to prove you, and that his fear may be before your faces, that ye sin not.”**(v20)

Apostle Paul testified to the saints of Thessalonians church who received Paul's teaching as the word of God: **“¹³For this cause also thank we God without ceasing, because, when ye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e heard of us, ye receiv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is in truth, 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eth also in you that believe.”**(1Thes. 2:13)

God spoke to Job in the whirlwind who thought himself more righteous than his friends:

“⁴Where wast thou when I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Job 38:4) And he continued to pour the questions that he couldn't understand nor answer (Job 38:41:31) Finally Job confessed, **“I have heard of thee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ine eye seeth thee.”** Repented saying, **“⁵I have heard of thee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ine eye seeth thee. ⁶Wherefore I abhor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Job 42:5-6)

Saul was breathing out threatenings and slaught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unto the high priest; and he came near Damascus: and suddenly there shined round about him a light from heaven saying unto him,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Until then, he didn't have any conviction of sin: he never even imagined that he persecuted Jesus. Finally he confessed to the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Act 9:1-6) Yea! It is impossible for us to know whether we are pleasing God or persecuting him until we hear the voice of the Lord. Even nowadays, how many people are persecuting the Lord thinking themselves the laborers of the Lord!

The Lord already has spoken to the people through his words for several thousand years. He has given enough time for men; but the issue is whether they believe the scriptures as the voice of God. In the age of grace, God has been patience through longsuffering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2Pet. 3:9). When time is fulfilled, all men have to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God:

“¹²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¹³Neither is there any creature that is not manifest in his sight: but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ed un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Heb. 4:12-13)

What about believing and receiving the words of the Apostles as the words of God? Apostle John testified:

“¹⁸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eth out fear: because fear hath torment. He that feareth is not made perfect in love. ¹⁹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John 4:18-19)

Yea! The perfect love is to believe on the Lord perfectly. Apostle Paul encouraged the saints of Philippians church:

“¹²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¹⁴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s and disputings:”(Phil. 2:12,14)

Yea! We are not supposed to doubt, murmur, nor dispute, for Lord Jesus loved us unto death. Lord Jesus resisted unto blood, striving against sin (Heb. 12:4) But we have never be striving against sin as him; so we have to love him with fear and trembling. WE have to be prepared unto holiness as him, until we come to be spotless and blameless within us. **“⁴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Col. 3:4) **Let us work out our salvation with hope!**